

## 2015 문화더누리 프로그램 <활생문화공명> 심의 총평

2015 문화더누리 프로그램 <활생문화공명>은 예년보다 늦게 사업 추진의 시기가 정해졌음에도 43개의 단체가 지원 접수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비춰봤을 때, 다음 회기년도에서는 1년 단위의 시간을 부여하여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 기획은 예술 진영의 사회적 접근과 사회의 문화적 요청 사이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은 많은 쟁점을 안고 있다. 가령, 이 사업은 사회 저변의 자발적인 아마추어 예술가 그룹들이 진행하기에는 전문성을 요하는 동시에 예술전문가나 그 집단이라고 해도 단순히 잘 트레이닝된 기예를 사회적으로 충족시키는 형태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이중의 과제가 부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번 심의는 <활생문화공명>의 취지와 의의에 부합하는 작품 선정을 폭넓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차후 이 프로그램의 진행에 좀더 진전된 피드백이 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우선 이 프로그램의 성격상, 1회성의 소모성 행사는 가급적 달리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이나 노인, 다문화 가정이라는 타겟 관객이나 참여자층을 목표로 하면서 예술의 생기와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기보다는 주어진 예술적 기예를 일방향적으로 가르치는 일반적 형태 역시 가급적 달리 평가하기로 했다. 이런 진행과정을 거쳐서 총 9개 단체가 선정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지역과 이미 긴밀하게 연동되어 예술 작업을 진행하는 단체들이었다. 또한 예술이라는 문화적 울림을 미지의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운으로 접근하는 단체들이 많았다. 심의위원들의 의견도 공통분모가 7할 정도에 이를 만큼 높은 컨센서스를 보여주었다.

이번 심의를 통해 <활생문화공명>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장기적인 전략 하에서 진행되기를 바라며, 그 진행과정에서 시행착오와 피드백을 통해서 제도적 장치가 진전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에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예술 작업을 하면서도 이러한 제도와 동행할 수 있는 자율적이면서도 동조적인 예술 단체가 보다 많아지기를 기대해본다.

심의일

2015년 10월 27일

심의위원

김남수(안무비평가)  
박이창식(문화살롱공 디렉터)  
황우자(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장)